

2026.07.12 세빛교회 주일 1부 예배
사사 드보라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본문: 사사기 4장1-7,16-24절
김상민 담임목사님

<서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현장 속에 응답이 임하길 바란다. 사사기 성경은 얼핏 보면 굉장히 암울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 국가로 발전하기 전 그 암울한 역사로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어렵지만 우리는 사사시대를 종결시킨 사무엘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한다. 사사시대 350년은 계속해서 재앙의 순환을 겪는다. 오늘 본문에 예후이 죽은 후에 또 문제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삿4:1]**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울삼아 교훈 받기를 주시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교훈과 지도력으로 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종결할 수가 없다. 지금의 세상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

<본론>

1.또 여호와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신들을 따라가며 반복적인 문제를 겪는다. 단편적인 해결이 되어서 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근본의 문제가 역사를 관통하며 계속 있기 때

문이다.**[삿2:10]**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이 없기에 자기 생각 따라가는 시대의 흐름은 단편적인 해결은 있을 줄 모르지만 근본의 변화가 없고 문제가 재현되고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삿21:25]** 이것은 사사시대 뿐 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처음부터 사람은 자기 소견의 따라 주인 되어 간 것이 문제의 시작이고 이것이 죄인 것이다.**[창3:5]**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그 안에 거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놓치고 사탄이 자극한 자기의 소견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어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로 인해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다.**[롬5:12]** 죽음이 아담에게 들어왔고 더 나아가 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지금도 우리도 같은 아담의 죄와 그 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말씀하신다. 우리의 소견에 따라 불순종 하는 죄의 죄성을 우리 사람도 갖고 있게 된 것이다.**[롬3:10-12]** 이 문제가 사사시대에도 현재 이 세상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는 문제이다. 자기의 소견의 옳은 대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창3장**의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이스라엘은 범죄하게 된 것이다.

2.다시 재앙에 빠져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언약을 떠나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니 재앙이 임했다고 말한다.**[삿4:2]** 가나안의 왕 하

솔 야빈으로부터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당했다.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 11장에 이미 점령했던 나라의 왕이다. 요단 강 넘어 여러성을 점령하고 이후 아이성 점령 후 남쪽에서 기브온의 족속들을 만난 이후 북쪽에서 전쟁하여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나오고 있다.**[수11:10,23]** 그런데 오늘 하빈이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기록하신다.**[삿4:2]**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셔서 누려야 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하고 살려야 할 현장에서 오히려 묶이고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삿4:3]**

3.의외의 방법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다시 구원을 하시려고 사사를 준비하시고 부르셨다. 이 사사는 하솔 왕과 철 병거 900대가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한 여자를 부르셨는데 말씀이 희귀하여 떠나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여자 사사 드보라를 부르셨다.**[삿4:4]** 너희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와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 여자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언약한 여성 드보라를 부르셨다. 이 전쟁에 있어서 드보라의 약점을

잘 아시기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 있다. 온전히 충성할 바락을 준비하신 것이다.**[삿4:6]** 또 헤벨의 아내 야엘을 준비하신다.**[삿4:17]** 전혀 예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행하신다. 이 드보라 당시의 역사하신 그 때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당연한 방법인 노력, 공덕, 선행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죄와 죽음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십자가의 구원을 준비하셨고 십자가로 승리 하셨다.**[골2:13-15]** 죄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잡고 있는 흑암을 꺾으시고 법적으로 끝내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고전1:18]**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다. 오늘 날 다음세대들은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빼앗긴 언약의 축복의 땅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신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쓰실 자를 찾고 계시기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사사시대를 종결시킨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에 모였듯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삼상7:5]** 여름에 진행하게 된 ‘미스바 ORA’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후대의 삶에 임할 수 있는 축원한다.